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이틀 연속 LPG선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유럽소재의 선사로부터 40,000CBM급 LPG선 2척을 추가로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약 600억원으로 총 1,200억원 수준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하여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Adnoc L&S bumps up growing VLCC fleet to eight with two vessel buys

대우조선해양이 Adnoc Logistics & Services로부터 LNG추진 VLCC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2023년 1분기에 인도 예정이라고 보도됨. 한편 Adnoc L&S는 스크러버 탑재형 VLCC 2척을 리세일 구매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선가 상승폭, 중고선이 신조선 앞질러

영국의 해운분석업체 MSI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신조선가가 2020년 4분기대비 +11% 상승했다고 보도됨. 중고선 거래량도 2015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수요에 힘입어 중고선 가격도 +20%가량 오를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중고선 가격 강세요인은 해운운임의 급등으로 시황이 좋은 상황에서 선박량을 빠르게 늘리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터키도 개방형 스크러버 금지

터키 또한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한다고 보도됨. 2020년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1월에는 말레이시아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 바 있음. 2021년 1월에는 파키스탄이 카라치항에서 세척수 배출을 금지한 바 있음. (선박뉴스)

LPG선 76%가 한국 품에

2021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LPG운반선 37척 중 28척(75.67%)이 국내 조선사의 품에 안겼다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은 LPG운반선 23척(62%)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이 5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전세계 LPG 해상수송량은 2022년 1.13억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5%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Yard backlogs lengthen as owners pile in for \$41bn of ships since October

Clarksons에 따르면, 최근 수주밸리로 인해 조선사들의 수주잔고가 3년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2020년 4분기부터 2분기 간 발주된 선박의 총 금액은 410억달러라고 보도됨. 주로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많았으며 전체 선대의 9%의 선박량이 최근 6개월 동안에 건조계약 체결됐다고 보도됨. (TradeWinds)